

존경하는 대한토목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토목학회 제52대(2020년도) 회장으로 입후보한 한만엽(韓萬燁)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학회에서는 이사, 토목의 날 준비위원장, 콘크리트위원회 위원장, 구조위원회 위원, 공공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콘크리트학회 부회장, 아시아콘크리트연맹(ACF) 회장, 국제표준화기구(ISO) PSC교량설계법 제정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미국콘크리트학회(ACI) 우수회원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 침체에 빠진 현 상황에서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은 업계, 학계 구분 없이 전 건설 산업계가 결집하여 위기를 타계할 수 있도록 학회의 발전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발전방안은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국가 건설정책 제시, 해외건설 중흥방안 제시, 통일대비 건설전략 제시 등의 대외적인 사안과 재무개선, 회원증대 등의 내부적인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사안의 선정과 선정된 사안을 성공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의 발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학회장이 된다면 실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설이 4차산업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산업이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인 복지, 친환경 산업인 동시에 4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논리를 정립하고, 홍보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다양한 추가적인 홍보수단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일반국민들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할 수 있는 미래형 건설산업을 제시하고, 건설이 4차산업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외건설 활성화와 북한건설사업 참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건설 시장은 그동안 국내 건설업계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서로 공유될 수 있고,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이 억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전문업체를 발굴, 선정하여 대기업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인프라 개선사업도,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의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

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적인 미래 신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는 건설 초기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건설산업이 위기를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미래사회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토대로 한 신산업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미래의 신산업인 고속진공운송체계(하이퍼루프), 지하도시, 스마트시티 등은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 분야의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한 복합산업이므로 그 개발과 실용화에 있어서 우리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회원구성과 학회활동이 학계 중심으로 편중된 결과 건설업계, 설계업계, 관계, 학생회원들의 정권회원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학회 활동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사전홍보 및 사후홍보를 확대하여, 모든 회원이 학회의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다섯째, 복합과제 발굴과 자산종합관리대책 수립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습니다.

학회의 주요 수입원인 연구사업은 전문학회들과 차별화되는 미래형 융복합과제를 발굴하여 산학연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직은 실적이 부진한 출판수입, 논문수입 등도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진빌딩을 포함한 학회의 부동산과 사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에 진행될 동진빌딩 재건축 사업에는 학회의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시장을 세밀히 조사, 분석하고, 설계사와 시공사, 임대업체를 엄정하게 선정, 관리함으로써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토목학회 회원 여러분!

건설은 회원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에도 우리 학회가 국가발전의 주역이 되고 우리 토목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15일
한 만 업 올림